

[ 원로, 종회의원, 종단 대덕스님에게 드리는 글 ]

# 태고종은 불교 전통종단입니다.

## - 제 24대 총무원장 선거의 잘못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

삼가 한국불교 태고종의 종정예하와 원로 대덕스님들께 예를 올립니다. 또한 중앙 종회의원 스님과 종단의 여러 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금, 불교 전통종단 태고종이 외부로부터의 위협도 아닌 일부 종도들에 의해 위란(危亂)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불교 전통종단 태고종이 가꾸어 온 위상조차 크게 흔들리게 된 점을 수행자로서 발로참회(發露懺悔)합니다.

세상이 태고종단의 참여와 실천을 요청하고 있는 이때에, 밀실(密室)에서 자의적(恣意的)으로 세상을 우롱하는 종단의 몇몇 인사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보경스님, 이하 선관위)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8월 11일 제98회 태고종 임시중앙총회에서 총무원장 운산스님이 자진 사퇴를 한 이후, 종단의 화합과 종도들의 화목 그리고 세상을 좀 이롭게 하는데 작은 추춧돌과 대들보가 되기를 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지난 8월 17일 제24대 총무원장 선거를 공고하고, 8월 24일~26일까지 3일간 후보자 등록을 모두 종료한 이후, 선관위가 새로이 정한 선거세칙을 적용하여 입후보자 4명 중 인공스님만을 제외한 3명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을 발표하였습니다.

선관위에서 8월 17일 선거공고를 하고, 8월 21일에 선거규정을 새로이 만들었으며, 후보등록을 8월26일에 마감한 이후, 8월 27일 오후 2시에 후보자격 심사를 하면서 선관위에서 새로이 정한(중복 추천을 제한한다) 선거 세칙을 적용하여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① 선관위가 종헌·종법을 임의대로 바꾼 것입니다. 즉 '총무원장 선거법'에는 "중복 추천을 제한한다"고 하는 아무런 조항이 없음에도 선관위가 스스로 법조문(法條項)을 만들었습니다.

②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이 받은 추천이 중복되어 추천 인원에 미달하였기에 후보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하는 등 직권남용을 하였습니다.

③ 선관위는 선거 업무를 편중, 차별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새로이 정한 규정을 보고, 승인받지 아니하고 공개 또는 공지하지 않았습니다.(종단 공문,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④ 선관위는 무원칙으로 자신들이 정한 선거 세칙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종단의 위상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선관위의 공개 사과와 함께 후보자 자격 심사에 따른 발표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총무원장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종단 중무행정(중무행정)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종단의 원로스님과 종회의원 스님 그리고 종단 스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번 종단의 위기가 분명히 태고종단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9월 7일 치러질 제24대 총무원장 선거는 우리 종단이 전통종단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종단의 공의에 의한, 또한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종단의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우리종단의 발전을 위하여 거듭 종단의 원로스님과 종회의원 그리고 대덕스님들의 매서운 경책 있기를 합장 당부 드립니다.

항상 종단 큰스님들께서 청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3(2009)년 8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 후보 등록자 정 대 은, 정 지 허, 이 도 산 합장

[ 전 종도에게 드리는 글 ]

# 부끄러운 종단 선관위, 바로 잡아야 합니다!

## - 제 24대 총무원장 선거의 잘못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

한국불교사의 길이 남을 태고종은 위로는 일체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선사님을 모신 종단으로서, 종단의 선지식과 신행 종도들의 귀의처(歸依處)요, 만대백성과 대대손손의 문화적 보고(寶庫)입니다.

이러한 태고종단이 외부로부터의 위협도 아닌 일부 종도들에 의해 위란(危亂)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도덕적 위의(威儀)를 가져야 할 종단 수장(首將)의 불미스러운 일이 채 정리되지 않고 생채기가 채 아물지도 않은 이때 또다시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종도들에게 보이고 말았습니다.

수행자로서 종단의 지도자로서 발로참회(發露懺悔)합니다. 이 부끄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불교 전통종단으로 가꾸어 온 위상조차 크게 흔들리게 된 점을 깊이 각성하고 반성합니다.

우리 국가와 국제사회가 태고종단의 참여와 실천을 요청하고 있는 이때에, 그 부름에 응당 힘쓰기에도 부족한 마당에 이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공개적이고 투명하기를 바라는 종도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도 버거운 절대절명의 시기에 그것도 밀실(密室)이 아닌, 자의적(恣意的)으로 세상을 우롱하는 종단의 몇몇 인사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보경스님, 이하 선관위)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물 안 개구리' 처럼 좁디좁은 우물 속에서 그 하늘만 가리고 있을 것입니까? 그 우물 속의 왕(王)이라면 우두머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불도(佛道)를 닦는 종도들의 지도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11일 제98회 태고종 임시중앙총회에서 총무원장 운산스님이 자진 사퇴를 한 이후, 태고종도들은 차기 총무원장이 종단의 화합과 종도들의 화목 그리고 세상을 좀 이롭게 하는데 작은 노뎃들이 되어주기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러한 종도들의 바람을 담은 그릇조차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종단 선관위는 지난 8월 17일 제24대 총무원장 선거를 공고하고, 8월 24일~26일 3일간 후보자 등록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선관위가 새로이 정한 선거세칙을 적용하여 입후보자 4명 중 인공스님을 제외한 3명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을 발표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합니다. 선관위에서 선거공고(8월 17일)를 하고, 선거규정을 새로이 만들고(8월 21일) 후보등록을 마감(8월26일)한 다음, 후보자격 심사(8월 27일)에서 새로이 정한(중복 추천을 제한한다) 선거 세칙을 적용하면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① 선관위가 종헌·종법을 임의대로 바꾸 바꾼 것입니다. 즉 '총무원장 선거법'에는 "중복 추천을 제한한다"고 하는 아무런 조항이 없음에도 선관위가 스스로 법조문(法條項)을 만들어 넣어서 종회가 해야 할 '입법활동'을 하였습니다.

② 선관위는 직권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종헌과 종법의 '후보자 추천'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입후보자들이 받은 추천이 중복되어 추천 인원에 미달하였기에 후보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③ 선관위는 선거 업무를 편중, 차별시키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업무에만 충실해야 할 선관위가 선거 세칙으로 정한 규정을 보고, 승인받지 아니하고 공개 또는 공지하지 않고(종단 공문,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특정 후보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선거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④ 선관위는 무원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의 모든 선거법은 그 발효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에서는 자신들이 자의적, 임의적으로 정한 선거 세칙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업무의 소홀과 잘못된 자격심사에 대하여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선관위의 후보자 자격 심사에 따른 발표를 당장 철회하고, 등록 후보에 대한 공개 재심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셋째, 재심사의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총무원장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4대 총무원장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때 비로소 한국불교의 전통종단으로 또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선출된 종단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종단 지도자로 선출되어야 사회적으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길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걷고 함께 걸어가면 태고종단의 앞 길은 신작로처럼 탄탄대로 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3(2009)년 8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 후보 등록자 정 대 은, 정 지 허, 이 도 산 합장